

# 수산업 거점 전남, 수협중앙회 등 수산공공시설 유치해야

### 도의회, 해수부 부산이전에 KIMST 등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 가결 전남, 국내 수산물 생산량 60% 이상 차지...생산액·어가 압도적 비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자 국내 수산업 거점만큼은 전남도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산거점인 전남에 관련 기관을 집중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 391회 본회의에서 이광일(민중·여수1)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 공공기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수협중앙회 본사를 비롯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환경공단, 과학기술진흥원(KIMST) 등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현상에 기반한 정책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결정"이라면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핵심기능은 전남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200만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어업 생산액과 어가 인구, 양식업 면적 등 수산 관련 대다수 부문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수산물 최대 산지인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해양생태계

복원 사업 등에 대한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이전대상으로 꼽은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난 2023년 어민단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전남 이전이 요구됐었고 본사를 전남으로 옮기는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전국 수협 단위조합 91개 가운데 전남은 19개로 경남과 함께 가장 많다. 그러나 위판량과 등 수익 면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가 국내 미래 수산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현장 중심 해양수산 유통, 판매 증진을 위해서는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긴 해안선과 다도해를 보유한 전남은 어촌·어항 개발 필요성도 커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의 전남 이전도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해양수산 연구 역량 강화로 해양수산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전남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지금 이 시점이 수협중앙회 등 수산 관련 기관의 전남 이전을 결정지를 찍기"라며 "해양산업은 부산이 중심일 수 있지만, 수산은 전남이 중심이다. 각계의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수산 기관들의 전남 이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방정리 어렵지 않아요” 골목식당의 주방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주방정리 컨설턴트 발대식'이 17일 오전 서구청 이음홀에서 열렸다. 발대식에 참석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발대식에 앞서 사진 찍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서구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음식점의 주방정리와 위생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피날레는 '여자 리커브 결승전'

### 9월 12일 5·18 민주광장...안산·임시현 등 활약 기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양궁인의 축제인 '광주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가 5·18민주화운동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17일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대미를 여자 리커브 개인전이 장식한다.

당초 12일 마지막 결승전은 남자 리커브 개인전이 예정됐지만,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조직위는 광주 출신 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와 한국 여자 양궁의 간판 임시현 선수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리커브 여자 개인 결승전 경기를 마지막으로 변경한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 결승전은 여자 리커브 개인전 16강~4강, 동메달 결승전, 금메달 결승전, 시상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결승전이 열리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옛 전남도청복원단과 협의를 거쳐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가림막을 제거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추후 저항지인 옛 전남도청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이다.

또 개막식과 폐막식이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 12일 금남로 일대를 막고 고싸움 등 한국 전통놀이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런 광주세계양궁대회 사무처장은 "인권도시인 광주에서 세계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치류 전 세계인들에게 광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9월 5~12일 열리는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는 예비엔트리까 마감된 현재 기준 67개국 703명 리커브·컴파운드 종목에 참가한다. 이어 같은 달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는 장애인 29개국 287명이 등록을 마쳤다.

선수들의 연습과 예선전이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은 현재 75%공정률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3년간 571명 회복 지원

### 1372건 상담 진행...17일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 개소식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확장이전을 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동구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한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현재까지 총 1372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571명에게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 센터가 이번 이전으로 고립 청년과 가족의 회복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문을 열었다. 센터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 공간은 상담실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자조모임과 사회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참여공간도 2개로 확대했다.

당사자가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안심공간'에 공유주방과 미니카페를 마련, 주위의 간섭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편안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주요 프로그램은 개인별 전문상담, 자조모임 '아무튼 모여', 생활습관 개선 '원, 원, 원, 해 요!', 대인관계 활동 '명랑한 은둔자 모임', 사회참여 활동 '아무튼 출근' 등이다.

센터는 고립 청년들에게는 자신만의 속도로 사회와 연결하도록 돕는 마음심터 역할을 함으로써 은둔 탈출을 원하는 당사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개인별 회복 단계에 맞춘 심층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실천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센터는 고립 청년과 가족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벤치마킹 방문이 55차례에 이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지역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1조3000억 발행

### 국비 317억원 확보

전남도는 17일 "올해 1조 3000억원 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경예산(총 4000억원)에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여수시) 사업비로 260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이후 추가 지원을 건의한 결과 일반지원 284억

원, 특별지원(여수시·무안군) 33억원으로 당초 신청보다 57억 증액된 총 317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은 무안군이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했던 연초부터 대비 175억원을 투입,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 발행을 추진했다.

22개 시·군에서도 1~4월 총 4245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선제 조치와 국비 확보가 맞물리면서 올해 전남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 1조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국민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 등 2회 추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